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11/7	이정자	20	여	신촌	1/16	이황룡	36	남	삼청	1/23	김용석	44	남	인천
1/2	박진수	19	남	동구	"	송식준	20	남	삼청	"	한화석	38	여	인천
"	홍수표	30	남	성북	"	김문환	33	남	삼청	"	서창후	30	남	진해
"	김길병	21	여	성춘	"	김재분	21	여	영신	"	김영수	23	남	진해
"	유정숙	16	남	신촌	"	박부자	31	여	녹수	"	정채원	30	남	대대
"	유정혜	20	남	인천	"	이옥자	17	여	원천	"	이광진	9	남	대대
"	유양일	18	여	영동	"	김순옥	17	여	수원	"	배광식	9	남	대대
"	이혜철	30	남	영동	"	김광일	17	남	군산	"	배미애	11	남	대대
"	이성숙	8	남	마산	"	최병권	17	남	군산	"	박자자	24	여	대대
1/9	이양순	22	여	광주	1/23	장동익	18	남	군산	"	박인성	23	여	부산
"	김정순	21	여	광주	"	김상준	16	남	동부	1/30	박유운	11	남	부산
"	이정순	24	여	광주	"	김대홍	11	남	동부	"	유유운	8	남	삼청
"	유애순	53	여	광주	"	김정식	21	남	인천	"	윤종희	34	여	삼청
1/16	신동화	27	남	동부	"	서희진	19	여	인천	"	윤혜경	14	여	동부

사 진 공 모

높아지는 성도들의 사진 예술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서생활을 복돋기 위하여 제 1회 사진 공모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품 접수 일시: 1971년 6월 31일까지

보 낼 곳: 한국 번역 출판부

작 품 내 용: 성도들과 관련된 것

대 상: 회원에 한함

크 기: 원색, 흑색 공히 8×10인치 이상. 액자는 본인 부담.

심 사: 사제의 권위자

별 첩 내 용: 이름, 소속지부, 칩제 년월일, 데이터(사진기, 렌즈, 시간, 조리개, 필름, 촬영 일시, 장소), 작품 설명을 사진 후면에 연필도 기재할 것.

시 상: 1, 2, 3등 및 장려상.

1 등: 가족 표지에 99% 순금을 도금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 성도의 벗 3년 장기 구독권.

2 등: 가족 표지에 99% 순금을 도금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 성도의 벗 2년분 장기 구독권.

3 등: 가족 표지에 99% 순금을 도금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 성도의 벗 1년분 장기 구독권.

장려상: 성도의 벗 1년 장기 구독권.

● 우수 작품은 성도의 벗에 소개한다.

● 시상된 작품은 번역 출판부가 보관한다.

1971. 2. 1

한국 번역 출판부

한 인 상

서중앙 지방부 대회

1971년도 제 1 차 지방대회가 지난 2월 6, 7일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첫날인 6일엔 오후 4시 반부터 전체 역원회가 있었으며 6시부터는 새 찬송가를 소개하는 합창대회가 있었다. 산하 5개 지부가 참가한 이날 신촌지부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반수가 훌륭한 합창을 하는 등 각지부의 열의가 대단하였는데 서부지부는 75, 222장을 불러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다음 날 대회의 제 2 총회에서 순서를 맞는 영예를 차지하였었다.

7일, 전날의 아름다웠던 찬송을 마음에 두었던 성도들은 10시와 2시에 있었던 제 1, 2 총회에서 지도자의 간증과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을 대회의 주제로 택했던 이날 성도들은 선교부장단, 지방부장단과 평의원의 말씀을 들었다. 350여 성도들은 지방부 행사로 정 연우(서부), 정 유진, 최 수영, 이 기동(인천), 정 지현(수원) 형제를 장로로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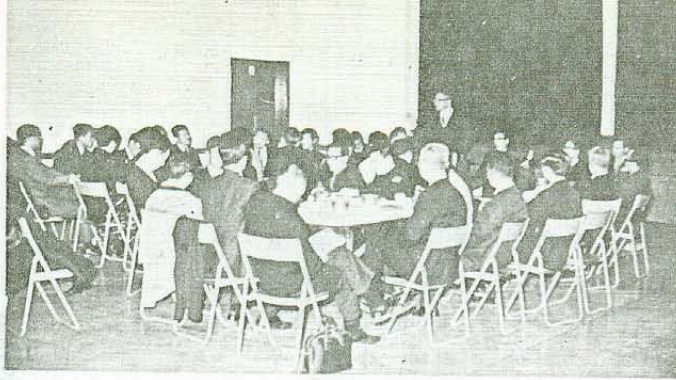


동중앙 지방부 대회

1970~71년도 제 2 차 지방대회이며 1971년도 제 1 차인 지방대회가 지난 2월 13, 14일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4시 전체 역원회, 6시부터 상향회 대회를 가졌으며 독주, 독창, 중창, 합창 등의 순서를 마련한 음악 경연 대회는 호남지방부로부터 지난 2월 7일 입적한 대전지부까지 6개 지부가 각축전을 벌였다. 이날의 최우수 지부로는 "거룩한 성"과 "오라, 주의 동산"을 부른 성북의 북 4 중창과 "그날"을 부른 동부의 2 중창이 공동 우승을 하였다.

14일 370여 성도가 참석한 제 1, 2 총회의 지방부 행사에서 강 석훈, 박 응복, 김 주화(삼척) 형제는 장로로 지지되었으며 민 동근 형제는 평의원으로, 이 윤희 형제는 지방부 행정 서기로 지지되었다. 이날 성도들은 선교부장단, 지방부장, 지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동서 중앙 지방부 합동 장로 정원회가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 동부지방부에서 있었다. 장 기호 동중앙 지방부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 모임은 양 지방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토론을 가졌다. 동중앙이 제공한 간단한 저녁을 들고 시작된 이날에 토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원회 회비는 배로 인상한다.
2. 분리되기 전에 넣었던 적금은 찾아서 양분한다.
3. 기금을 모으되 묘지 구입보다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의결되면 그것에 사용한다.

군산지역 “물문 전시회” 갖다

지난 해 4월에 개척된 바 있는 군산지역은 40명이 참석하는 집회로 성장하여 왔다. 참석하는 거의 모든 회원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교회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열의는 지난 1월 21일부터 3일간 선교사 숙소로부터 예배당을 분리하는 기념 전시회에서도 잘 나타났었다. 3층에 있는 예배당(중앙로 1가 65번지, 우체국 월편)까지 안내와 설명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이들은 600명이 관람하는 상황을 이루게 하였었다.



삼청-수도 육군 병원 위문

동 중앙 지방부의 삼청지부는 2월 12일 삼년제의 수도 육군 병원 위문 공연을 가졌다. 6시부터 진행된 이날의 공연 벽두에 선교부장과 지방부장은 환자들의 노고를 위로했었으며 노래와 무용과 환자 특기 자랑, 연극 등의 순서는 9시까지 진행되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다 부상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삼청지부는 한달 동안 준비했었다.

이들은 자기 지부와 선교부장, 지방부장, 서부지부 한국 번역 출판부가 회사한 위문대 350개와 성도의 벗 50원도 함께 갖고 갔었다.

이 형제 결혼

동부지방부의 이낙연 형제와 장희주 자매의 결혼식이 2월 2일 12시 30분 서현보 선교부장의 주례로 와이엠 시이 에이강당에서 있었다.

장 자매에게 직접 교리를 가르치고 침례를 준후 결혼식을 마친 이들은 지난 2월 10일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 선교부에서는 1971년도 신전 방문 인원수를 8부부로 결정하고 그 준비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지부의 지부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 3. 1.

한국 선교부장단

팔머 박사 방한

제 2대 한국 선교부장을 지낸 바 있는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가 지난 1월 27일 한국에 왔다가 2월 3일 미국 쉐르레이크 시로 이한하였다.